

“특별법 염원”... 여순사건 71주년 합동추념식

19일 이순신광장... 유족·4개 종단 등 500여명 참석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원하는 시민의 염원 실현을”

제71주년 여순·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이 여주시 이순신광장에서 거행됐다.

여주시는 여순 10·19사건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합동추념식이 지난 19일 여주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여순사건 지역민 희생자 지원사업 시민추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합동 추념식에는 유족, 시민사회·안보보훈단체 회원,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여순사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번 합동추념식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4대 종교단체 추모행사와 시립국악단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추모사,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묵념 사이렌이 여주시 전역에 울려 퍼지며 눈길을 끌었다. 여순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과 더불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묵념 사이렌이 기획됐다.

김모(63·여·여주시 중앙동)씨는 “사이렌 소리를 듣고 오늘이 여순사건 추

념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헌화와 분향 시간에는 민간인, 경찰, 군인 등 여순사건 희생자들의 성명이 화면에 송출되어 유족들을 위로했다.

황순경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는 연로하신 유족분들이 마지막일지도 모를 어려운 결음을 함께 해주셨다”며 “이분들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실 때 특별법이 빨리 제정되어 명예회복과 진실규명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순사건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주승용 국회의부의장(여주시을)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이제 이념갈등을 떠나 정말 진실로 화합하자는 차원에서 법안명칭도 ‘치유와 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법’으로 했다”며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추념식에 이어 저녁 7시에는 지역의



여주시는 여순 10·19사건 희생자를 기리는 71주년 합동추념식이 지난 19일 여주시 이순신광장에서 열렸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합동추념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묵념하고 있는 모습. 여주시 제공

화합과 특별법 제정을 염원하는 여순사건 문화예술제 ‘화해와 평화의 바람’이 성대하게 개최됐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오늘 행사는 우리 시대 잊어서는 안 될 교훈과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중한 기회다”면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원하는 시민의 염원이 꼭 실현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 신월리에 주둔한 국방경비대 제14연대 소속 군인들이 제주 4·3사건 진압을 거부하며 촉발된 사건이다.

이후 1950년 10월까지 약 2년여간 전남, 전북, 경남 일부 지역에서 비무장한 민간인들과 군인, 경찰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고 당시 여수를 포함한 7개지

역(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에서 1만여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방정국이던 시대적 상황에서 발생한 여순사건은 7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실 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미해결 상태로 남아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ggilee@jilbo.com

지역의窓

여수 맛집 정보 한곳에 모바일 앱 ‘여수맛’ 출시



여주시 관내 음식점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여수맛’이 출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주시는 지난 18일 바가지요금 근절과 음식 업체 간 가격경쟁 유도하고 여수 시민 및 관광객들이 관내 음식점의 가격, 메뉴, 영업시간 등의 정보를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안내받을 수 있는 모바일 앱 ‘여수맛’을 출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모바일 앱 ‘여수맛’에서는 음식점 등 각종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또 모범음식점, 착한 가격업소, 여수 10미 취급 음식점, 조식 제공 업소, 시민할인 정보 등도 검색 가능하다.

아울러 음식점이나 메뉴에 리뷰를 남겨 정보를 공유하고, 나의 맛집과 메뉴도 관리할 수 있다.

‘여수맛’은 여수 소재 음식점이 직접 정보를 등록하고 변경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10월 현재 음식점 821개가 등록돼 있고, 홍보 효과가 뛰어나 참여 업체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주시는 음식정보 물가정보모니터 요원 등과 함께 음식점 휴·폐업, 음식 가격·메뉴 등을 점검하고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정직한 관광, 신뢰받는 관광, 지속가능 관광의 밑거름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빠른 시일 내에 모바일 앱이 정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국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 ‘성료’

충남 천안 출신 이선호씨의 ‘오 마이 갓 샴’ 대상 수상

여수의 맛과 멋을 알리고 새로운 먹거리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열린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가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호평을 받았다.

여주시는 지난 18일 이순신광장에서 열린 ‘제3회 전국 여수 수산물 음식경연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주시는 이번 대회가 풍성한 먹거리, 즐길 거리뿐만 아니라 어느 때보다 관람객 참여도가 높았던 축제의 장이었다고 평가했다.

여수의 맛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음식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 각지의 요리인 19팀 35명이 참여해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상은 충남 천안시 출신 이선

호씨가 차지했다. 이씨는 여수 특산물인 삼치와 갯에 수삼 등을 더해 ‘오 마이 갓 샴’이라는 요리를 선보였다.

‘오 마이 갓 샴’은 심사위원들로부터 요리의 맛, 창작성, 작품성, 독창성 등에서 고루 좋은 점수를 받았다.

행사장에는 서대화와 활어회, 찰밥과 외플 등을 맛볼 수 있는 부스가 차려졌고, 지역가수와 정보과학고등학교 밴드 동아리 회원들은 대회 분위기를 띄웠다.

특히, 인기상 선정에 일반 관람객이 직접 음식 맛을 보고 평가하게 함으로써 몰입도와 재미를 높였다.

시 관계자는 “우수 음식으로 선정된 메뉴의 조리법을 일반음식점에 보급해 대중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난 18일 일본 도야마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여주시가 2023년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 여주시 제공

2023년 ‘세계 아름다운 만 클럽’ 총회 유치 확정

해상 국립공원, 천혜의 자연 경관 등 높게 평가

2023년에 있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Club of the Most Beautiful bays in the World) 제19차 연차총회가 대한민국 해양관광 휴양도시 여수에서 개최된다.

여주시는 지난 18일 일본 도야마현에서 열린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클럽’ 제15차 연차총회에서 여주시가 2023년 총회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여주시는 그동안 여수항 개항 100주년을 기념하고,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개최 보증을 위해 세계 만 클럽

에 힘입을 예정이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2023년 세계 만 클럽 총회를 유치하게 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총회가 여수 발전의 발판이 되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여수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연차총회 하루 전날인 지난 17일 권오봉 여주시장이 이사회 임원들을 직접 만나 지지를 호소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

이날 세계 만 클럽 이사회 임원들은 여수의 보석 같은 365개 섬과 아름다운 해상 국립공원, 천혜의 자연 경관과 미국 FDA에서 인정한 청정해역 등을 높

게 평가했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2023년 세계 만 클럽 총회를 유치하게 돼 매우 뜻 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총회가 여수 발전의 발판이 되고 전 세계에 아름다운 여수를 더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만 클럽은 만의 보호와 보전,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지난 1997년 3월 설립된 국제비정부기구다.

여지만, 가막만, 장수만 등 5개 만을 품고있는 여수는 지난 2009년 11월 회원에 가입했고, 2014년 제10차 연차총회를 개최한 바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지방세 고충민원, 고민 말고 상담하세요”

여주시가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시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세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여주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주시 관계자는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주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여주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여수, 대성산업가스와 680억 투자협약 체결

여수시와 대성산업가스(주)가 대규모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여수시는 21일 대성산업가스(주)와 680억 규모의 공장 증설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에 따라 대성산업가스(주)는 올해부터 내후년까지 여수산단 GS 캠퍼스 1공장 8303㎡ 부지에 산업용가스 공장을 증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간 산소 15만톤과 질소 38만 톤을 생산하고,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할 방침이다.

또 소속 직원 전일, 여수시민 채용, 지역물품 우선 구매, 지역기업 우선 이용을 약속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번 투자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인·허가 등 행정 지원

에 힘입을 예정이다.

권오봉 여주시장은 협약식에서 “이번 공장 증설이 여수국가산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성산업가스가 지역에 탄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성산업가스(주)는 국내 최대의 산업용가스 제조업체로 일반 가스, 초고순도 순수가스, 반도체용 특수가스, 등 다양한 제품을 생산·공급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로봇과 일자리의 미래’ 26일 과학강연회 개최

여수시가 로봇의 확산과 일자리 변화를 전망하기 위해 ‘로봇과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LAB2050’ 이원재 대표의 과학 강연회를 개최한다.

여수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쌍봉도서관에서 ‘LAB2050’ 이원재 대표를 초빙해 ‘로봇과 일자리의 미래’라는 주제로 과학강연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과학강연회부단체 ‘10월의 하늘’이 주최하고 쌍봉도서관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역 청소년이 미래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이원재 대표는 로봇의 확산과 일자리 변화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누구나 무료로 강연에 참여할 수 있고, 청소년은 봉사활동사이트 ‘두발’에서 봉사활동 시간도 인정된다.

참여 신청은 행사 전일까지 여수시립도서관 홈페이지(yslib.yeosu.go.kr)와 전화(061-659-4775)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뜻 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학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